

제 222 호

연중 제 7 주일
(출판물 보급 주일)

1977. 2. 20.

숲 정 이

발행인	김 증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론 □



그리스도 신자들은 바보

성 태 수 신부

어느 동네에 「바보네 가게」라고 불리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는 다른 가게에 비하여 많은 단골 손님들을 가지고 있다. 주인이 가게의 이름을 「바보네 가게」라고 한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손님을 대할 때 일부러 바보스럽게 행동을 하면 손님들이 멍텅구리라 물건을 싸게 주겠거니 하고 모여든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심리를 이 주인은 역(逆)으로 이용한 것이다.

오늘 복음을 보면 그리스도 신자들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쪽 빵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빵마저 돌려대주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 있거든 속옷을 빼앗아도 딱지마라」고 하시니 이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는가. 또 실제로 “한쪽 빵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빵마저 돌려대주는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이빨이 성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어리석음을 요구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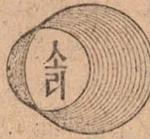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온통 어리석은 자의 생애가 아닐 수 없다. 높은신 하느님의 아들인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시다니 지금도 바보스러운 이 행위를 똑똑한(?)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 어리석고도 바보스러운 안에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리석도록 철저히 “위하는 삶” 안에 우리 인간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기중심적인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남을 “위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조금만이라도 바보스러워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삭막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 「바보네 가게」의 상술이 아쉬운 시대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로서 너무도 영리하고, 계산적이고, 이해타적인 신자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보가 될 수 없을까!

<합열천주교회 보좌신부>



사순절과 돼지

〈돼지〉 하면 꽤 구질구질하게 느껴지지만, 그 미련스러운 모습이 우직하게 여겨져 약간은 호감이 가기도 한다. 어쩌면 세상이 하도 약아빠져서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지 도모르겠다.

「돼지...체질이 강한 가축. 번식은 임신 4개월만에 여러마리를 낳음. 고기 맛이 좋아 여러 가지로 가공되고, 모피·내장·뼈·지방 등은 이용 가치가 큼. 분노는 거름으로 쓰임.」(새 우리말 큰사전)

사제양성 후원기금을 모으는데 그렇게 지저분한 인상을 주는 돼지 지금통 말고는 없을까하는 이론이 있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좋게 느껴지는 점들이 꽤 많다. 또한 성서에도 “진주와 돼지”(마태오 7, 7), “돼지 속에 들어간 마귀”(마태오 8, 28-34)등으로 그려져 썩썩하게 여겨지지만, 다른 어떤 동물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설교도구로 뽑혔다는 것 뿐 아니라 마귀를 처치하는 역할을 했다는데에 생각이 달라진다.

여하튼 금년 사순절에는 집집마다 나누어진 돼지 저금통과 친해야겠다. 체질이 강한 동물이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털이 없으니 많이 줄 먹이자. 임신 4개월이 아니라 임신 40일만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게 하자. 고기 모피·내장·뼈·지방, 심지어 분노까지도 쓸모가 있어 이용 가치가 큰 짐승이 돼지 아닌가? 어쨌든 부활절에 봉헌하는 돼지가 정말로 쓸모있게 하기 위하여 잘 먹이자.

군것질 (주천부리)도 줄이고, 술과 담배도 줄이고, 극장가는 것도 줄이고, 도락도 줄이자. 위와 같은 일과는 상관없는 형제자매들은 온갖 심혈을 다 쏟아 모우는 그 체화를 하늘에도 조금은 쌓아보자. 좌우지간 돼지를 배물리자.

우선 당신 집의 돼지를 가장 잘보이는 곳에 놓아두자.

숲 정 이 산책



살찌게 먹입니다.



사제 양성 후원 사업

오늘, 우리 교구내 모든 본당과 공소에서는 「사제양성 후원사업」에 관한 특별강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양성 후원사업은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왜 우리는 사제양성 후원사업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제양성 후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구에서 하고자하는 사제양성 후원사업은 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니, 그 하나는 성소를 개발하여 새로운 사제를 탄생시키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일선 사목에서 은퇴하시어 정양중이신 신부님들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제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제를 생각할 때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영원한 스승이며, 착한 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가 그러하듯이 사제는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봉사하며, 성무를 집행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영성으로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사제에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은 길입니다. 자신을 하느님께 던져 맡기고 하느님의 뜻을 떠나가는 일이 결코 쉬운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100만 신자를 도와주시는 사제의 숫자는 1,000여명입니다. 그 가운데 300명은 외국인 사제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인 사제의 대부분은 외국의 뜻있는 독자들이 정성을 모아서 양성해주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천주교 신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사제들은 외국인의 정성으로 양성되었거나, 아니면 외국인 사제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분은 구호물자 신자에 구호물자 신부라고 우리들의 처지를 지나치게 낮추어 말하기까지 합니다.

조선교구가 설정된지 146년, 우리들 손으로 조선 천주교회를 창립한지 19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언가 달라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땅에 필요로 하는 사제를 우리 손으로 양성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뜻에서 이제 우리도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외국의 은인들이 우리 사제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그들이 넉넉해서는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구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나서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제성소 감피 현상에 절절대는 세계적인 추세임에 비추어 볼때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정말로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일뿐입니다. 이일 마저도 외면한다면 정말 배운망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분은 옛날보다는 교구 신부님들의 숫자가 많아졌으니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급속한 변천은 특수사목에 전념할 수 있는 사제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주인공들인 학생들, 어려운 노동조건 속에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가톨릭 노동청년회(J.O.C), 기계발 상태로 버려진 농촌에서 일하는 가톨릭 농민회등 우선 급한 문제들만 다루어 내도 한돌이 아닙니다. 또한 한 분의 사제가 1,000여명 정도를 사목해야 적정선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사제의 숫자가 많아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남북 통일이 되었을때의 사제없는 북쪽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일생을 양들을 위해 바치신 정양신부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생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생각해봅시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재 사목하시는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로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성소에 향구하고, 또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둘째, 우리의 정성을 봉헌합니다. 내자신을 하느님께 송두리째 못마치는 대신에 그렇게 바치신 분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현재 교구내에는 평생을 사목하시다가 은퇴하신 신부님이 일곱분 계십니다. 그분들 우리가 보살펴드리지 않는다면 누가 그일을 대신할 것입니까? 금년도 교구예산을 보면 정양 신부님들을 위해 8백4십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1천1백9십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예산이 교구 전체예산의 31%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은 외국에서 원조받는 예산으로 충당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간 사제양성 후원사업에 협조해주신 교형자매들의 정성이 모아지기는 했지만 7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제양성 후원사업에 청약하시고 아직 완납을 못하신 형제들은 빠른 시일안에 그일을 끝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참여하지 않으신 형제자매들도 이일에 빠지지 맙시다. 끝내신 형제자매들은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년 사순절에는 오늘 각가정으로 나누어드리는데 저금통에 이 거룩한 뜻으로 정성을 모아봅시다. 그리하여 부활 대축일에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 봉헌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얼마나 살찌우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전주교구 사제양성 후원회

교우 여러분의 성원속에 자라는 한국운수는 적은 자본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분을 구합니다.
전주지구 3, 군산지구 2, 이리지구 1, 진안, 장수, 무주, 순창 지방, 각 1개소
위와같이 대리점을 증설코저 하오니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流 운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 65-16(전화4940)

한 등 압 (모이세)

OSTAR 미사·전자장판 대아 전기 전복배리점
여의주 전자 약탕기 전주 배리점

광 신 전 업 사

박 상기(안드레아)

전주시 중양동 3가16<한일판 앞> 전화 2-4753

□각종 조명기구, 석유 연소기구, 가정용 전자기구□

출판물 보급 주일



『어딘가 샘구멍에서 계속 물이...』

—1976년도 전주교구 도서 보급 활동보고

교회안에서 홍보수단을 가지고 사목을 돕고 있는 성바오로 서원에서는 해마다 그해의 결과를 알기 위한 통계를 작성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결실을 기대해 보곤 한다. 이곳 전주서원에서 76년 한해 동안의 활동상황을 돌아보면 전주시내 몇몇 관공서와 10월 한달동안 각 남녀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도서 전시회를 가졌던 것이 대외적인 활동이다. 사회적으로나 교회내에서나 청소년 선도 문제가 시급한 요즘,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이고 건전한 독서에 취미를 갖게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것 같다. 이런 문제와 독서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신 해성고등학교 김성원 교감 선생님의 배려로 도서전시회를 가질 수 있었던 학교는 전라고, 전여상, 근영여고, 신흥고, 전여고, 전고, 성심여고 해성고 등 9개교와 전북대 사대이다.

한가지 특기해야 할일은 이들 학교중 신흥고 학생들의 반응이 대단히 적극적이었던 점이다. 학생뿐 아니라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사 전원의 열성적 성원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교사가 다 출수 없는 것을 양서를 통해 가르치려는 교육적이고 겸허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 꾸준한 독서운동과 책을 통한 종교교육이란 방침으로 독서율이 높은 성심고 해성학생외에도 교회서적을 전혀 모르던 학생들이 학교도서전시회의 접촉으로 인해 서원을 찾는율이 눈에 보이게 많아진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

또 한가지 사회자선단체와 개신교 신자들이 소년원의 도서관에 많은 교회서적을 비치했다는 것과 한일여자신학교의 교수 이영호 목사님의 오로지 신앙에 입각한 자세로 가톨릭계의 신학서등을 높이 평가하고 새로운 신학연구의 중요성을 느껴 학생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개신교측의 학교, 목사님 이하 신자들의 크신 협력을 들 수 있겠는데, 교회일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때 내것, 내것을 가리지 않고 진리안에서 보다 자유로운 만남을 위해 범교회적 아량을 보여준 개신교 형제들께 감사드리지 않을수 없다. 지난해 전주 성바오로 서원에서 보급된 도서 종류와 권수는 다음과 같다.

전례 8,394, 성인 3,906, 교리 3,766, 성인묵상 2,218, 철학 신학 907, 사회교육 1,251, 문학 교양 6,284, 아동도서 2,734, 잡지류 657, 계 30,657권

작년의 28,978권에 비해 조금 많아지긴 했으나, 사실 전북도민의 인구수에 비해 3만여권의 숫자로 만족할 수는 없다. 강물에 돌 던지기 식의 엄청난 무력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이 누룩과 겨자씨이기를 바라면서, 또 “나는 실고 아폴로는 물 주었습니다”라고 고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뿌린씨가 잘 자라도록 서로 협력해야 함을 느낀다. 혼탁한 사회가 맑아지기 위해서는 어딘가 샘구멍에서 계속 물이 솟지 않으면 안된다. 미미한 활동이지만 끊이지 않고 흐르는 것만이 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희의 홍보사도직을 통해 전주교구 사목에 전념하겠다. (전주 성바오로 서원 제공)

요심이 (86) 김명오



꽃상여, 입판, 입판부속 일체
최 시 관 집
 ☆교우들에게 특별염가 봉사☆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최 병 화(그레고리오)
 ☎ 5216

☆ 개업안내 ☆

어린이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필요한 각종 교재, 참고서 등 서적 일반 취급

삼 북 서 점

김 성 기(자카리아)

□장소:대성학원 옆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미성당 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화 ③3301 (자택 ③8548)

* 원아 모집 *

자격: 만 5세~6세 어린이

기간: 1월 27일~2월 27일

성 모 유 치 원

주소: 전주 중앙 성당 내

전화: ③6669, ③3874 번

지업부: 벽지, 장판, 각종 비누류
 문방구: 학용품, 사무용품
 완구부: 보행기, 어린이 장난감 일체

동 아 상 회

※교우 특별우대, 많이 찾아주세요!

장 경 암 (레오)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주장 옆)

전화 106번

경향잡지, 소년도 취급 합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는 가톨릭 센터로 연락하세요

가 틀 리 시 보

전주지사장 법 석 규 신부
 주재 기자 한 상 갑 (바오로)
 수 금 원 법 덕 배 (피토)

□전주시 서노송동601, 가톨릭 센터 (③349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보다 뜻깊게 보냅니다. (2월 23일<수>...제의 수요일)
 - ① 사제양성 후원을 위해 각 가정에 나누어 드리는 돼지 저금통에 정성을 모아 봉헌합니다.
 - ② 금요일(소제)...사순절 동안의 매주 금요일
 - ③ 금요일 단식일(대제)...2월 23일, 4월 8일
2. 중·고등 학생 교리 경시대회 (오늘 오후 2시, 각 본당에서, 시상...3월 13일 정기총회시)
 - ① 미리 우송된 문제지는 본당신부와 다른 본당에서 파견된 감독관 입회하여 개봉할 것(시험시간 60분)
 - ② 시험 직후 감독관은 답안지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중·고 표지하여 한 봉치로 봉합한 후 본당 신부와 감독관이 날인하여 교구청 사무국으로 즉시 우송할 것
3. 대학생 연수회는 사정상 무가 연기함
4. 공수 회장 연수회 (3월 2일<수>-4일<금>, 가톨릭센터)
5. 군옥 (월명, 팔마, 둔율, 대야) 학생, 청년 동계수련회(주제 : 현대인과 성서, 강사 : 최규업, 한상갑)
 - ① 배 : 25<금>-26<토>, 학생(오전 9-오후 1시), 청년(오후 7시반-10시) ② 곳 : 둔율동 성당
6. 금주의 방송 안내(서해방송, 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한복섭 신부방송)
 - . 교구인사...대학생회 지도...안복진 신부, 혼인문제 담당실 서기...법선배 신부 (이상 2월 5일자)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 후, 강당
2. 유아세례 : 25일(금) 어머니 미사 후, 성당
3. 어린이 미사 : 토요일 오후 4시반(미사책 지참 바람)
4. 예비신자 교리 안내 : 학생-(일) 오전 8시반 미사후 (토) 오후 6시 일반 및 직장인 : (일) 공식 미사후, (화·목) 오전 10시, 오후 8시. 노인 : (일) 공식 미사후, (화) 오전 10시 ※ 교리 개강 : 20일부터
5. 사순절을 뜻 있게 ! (공지사항 참조)
6. 감사헌금 10,000원 (익명)
7. 성당내 수은통 기증 100,000원 (익명)
8. 주일 봉헌금 : 104,231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홍
사도 회장 박종용

1. 성모회 성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 후
2. 신용조합 새 임원 : 이상장-유영철, 부이상장-김성록, 이사-박종용, 이정은, 박귀선, 감사-장성복, 박성규 ※ 전(前) 임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3. 사순절 특별 강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미사 후 25일(금)-법석규 신부님 (주제 : 신앙생활)
4. 재의 수요일 예절 : 오전 6일 10시, 오후 7시
5. 주일 봉헌금 : 48,52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청년회 월례회 : 공식 미사 후, 많은 참석 바람
2. 어머니 미사 : 월요일 오전 10시 반, 많은 참석 바람
3. 사제 양성 후원 사업에 적극 참여를 !
4. 재의 수요일 : 23일, 단식과 금욕제를 지킵시다.
5. 신용 조합원 : 통장 지참하여 배당 받으시기 바람
6. 주일 봉헌금 : 46,340원

(북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검진 신청 : 국민학교 5학년 이상, 28일까지
※ 세례 증명서 1통 지참하여 사무실에 접수 바람
2. 교무금 납부하여 본당 운영 도움시다.
3. 사제 양성 후원 사업에 적극 협조를 !
4. 성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 후
5.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6. 주일 봉헌금 : 36,755원

(서학동)

전화 ②27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어머니회, 성모회 : 공식 미사 후
2. 교리교사 연수회 7명 참가 : 많은 기도 바람
3. 학생회 정기총회 : 교리 경시대회 후
4. 반상회 : 9반(22일), 10반(23일), 11반(24일), 12반(25일)
5. 청년회 월례회-26일 오후 7시 반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누알다 부녀회 총회 : 오늘 공식 미사 후
2. 감사합니다 : 유치원에 고급 전축 1대(오 방운제) 유치원에 외부 운동 기구 일체(익명), 성모상(익명)
3. 주일 봉헌금 : 67,13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성
사도 회장 김유석

1. 꼬미씨음 월례회 : 오후 1시 반
2. 장우회 : 오후 5시 (척사대회)
3. 성지가지 회수 : 23일 까지
4. 성가대 총회 : 26일(토) 오후 7시 반
5. 성가정회 새 임원
회장-김베로니카, 부회장-은세시리아
6. 신용조합 총회 : 21일(월), 오후 1시, 성당에서
7. 주일 봉헌금 : 100,810원
☆ 감사헌금 (1만원) 한상갑 내의
교적을 옮기며 그간 받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